

특집. 축산물의 수입개방 압력에 대처할 방법



농림수산부 대가축과
과장 김 동 근

開放壓力과 우리의 對應

그동안 國民所得 向上과 더불어 쇠고기 消費는 繼續 增加되어왔으며 특히 '70年代 後半에는年平均 15%라는 높은 伸張率로 늘어남에따라 國內 소 飼育頭數는 相對的으로 크게 減少하여 '81年 에는 '73年 以來 最低水準인 151萬頭水準으로 줄어들었다.

이에따라 쇠고기 自給基盤構築을 爲해 韓牛繁殖團地造成 外國產 肉牛의 導入 入殖 等 소 增殖事業을 積極推進하게 되었으며 특히 '83년에는 非正常的 水準까지 上昇한 소값을 진정시키고 農家의 肉牛入殖支援을 圖謀시키기 爲 하여 肉牛를 導入하게 되었고 國內產 쇠고기 生産供給만으로는 國內需要를 充當할 수가없어 需給과 價格安定用으로 最少限의 絶對不足量을 輸入 充當 한바있다.

이와같은 소 增殖事業과 더불어 지난 '81年以後 '83년까지 持續된 소 값의 好調로 農家의 飼育意慾이 크게 高취되어 '82년부터 소 飼育頭數가 계속 增加된 反面 쇠고기 消費는 增加趨勢가 鈍化됨에 따라 소값이 下落하게 되었다.

따라서 政府에서는 소값 安定을 爲하여 '84年 下半期以後 肉牛와 쇠고기 輸入을 中斷하게 되었다.

'80年代 以後의 世界經濟여건의 好調와 國內經濟성장기반 擴大로 年平均 7% 以上の 高度成長과 慢性的인 國際收支 不均衡이 '86년부터 輸出黑字에 힘입어 大幅改善되고 있으나 先進國의 保護貿易障壁이 더욱 거세어 짐에 따라 國內市場의 開放壓力이 더욱 加重되고 있다.

특히 美國을 비롯한 先進國에서는 쇠고기를 비롯한 農産物의 輸入 開放을 強力하게 要求하고 있으며 貿易交易 側面에서 볼때는 相互間의 交易增進을 爲하여 相互協助해 나가는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農村의 農家經營規模가 先進國에 比해서 零細할 뿐만아니라 所得面에서도 相對的低位 水準에 있어 農業部門에 關한限 生産基盤의 保護가 不可避하고 또한 어떤 國內生産品目의 生産農家나 特定産業에 萎縮이 온다면 政府로서는 適切한 措置가 必要하기 때문에 少量의 觀光호텔用 이라 할지라도 「소값이 回復될때까지는 輸入을 一切하지 않는다」는 政府의 確固한 立場을 거듭 表明 하여왔다.

이와같은 開放壓力에 슬기롭게 對處하기 爲해서 養畜農家は 飼養管理의 內實化와 粗飼料確保 等 經營費 節減에 注力토록하고 從來의 非效率인 飼育方式을 再檢討해야 할것이며 市場出荷調節을 통한 適切한 價格維持로 農家의 安定的인 所得保障이 될수 있도록 市場對應能力을 키워나가야 할것이며 또한 肉類消費의 다양화를 爲하여 肉加工品의 生産增大와 技術開發이 擴大되고 肉類流通構造 改善을 爲하여 우리나라도 先進國과 같이 쇠고기의 部位別 差等價格制 實施를 신중히 檢討하고있으므로, 이에따라 養畜農家도 좋은 部位의 고기를 많이 生産할수 있도록 品種선택 및 飼養管理改善 等 으로 良質의 고기를 生産할수 있도록 積極推進 하여야겠습니다.